



정지용 동문

우리대학 주차장 부스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지용 동문은 미소의 전도사로 불린다. 정 동문은 뇌병변지체장애 3급의 아픔 속에서도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감사의 인사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코코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www.bible.ac.kr

발행인_ 강우정

편집주간_ 이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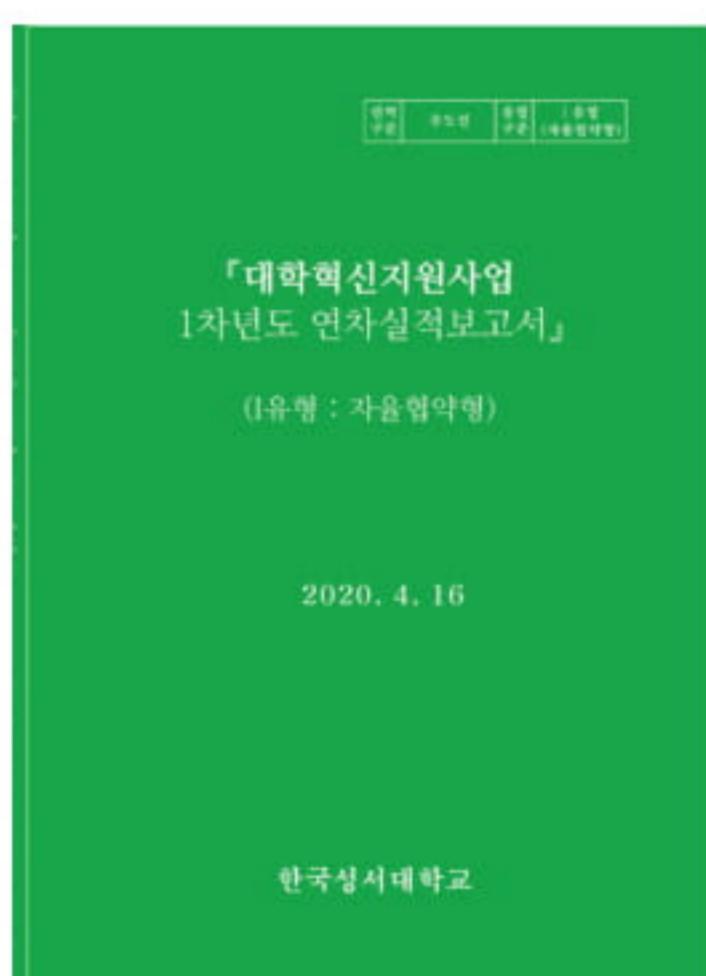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TEL _ 02-950-5401

“대학의 질적, 양적 변화 크게 이루어”

강규성 단장,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대학혁신지원사업 1 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 대학혁신 사업보고서 표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따라 우리 대학이 지난해 시행한 대학혁신사업의 제 1 차년도 실적 결과가 나왔다. 대학혁신사업단 (단장 강규성 부총장)은 지난 16 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혁신지원사업 1 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를 제출하였는데 강규성 단장은 " 지난 1 년의 사업 수행을 통해 고비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 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준 공동체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대학혁신사업 (사업비 14 억 6 천만 원) 의 큰 목표는 '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최고의 전공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서인 · 전문인 · 사회인 양성 ' 이다.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인재상은 ' 바른 인성을 갖춘 전문기독인 양성 '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4 대 전략방향과 12 대 추진전략, 24 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1 차년 진행된 주요 사업은 교육영역 6 개, 산학협력 영역 2 개, 기타 영역 1 개를 포함 9 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결과는 '일립교육 혁신에 의한 학생 공동체성 함양' 과 '학사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 9 개 분야에서 대학의 질적, 양적 변화를 크게 이뤄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각 영역별 사업에서 성과가 두드러진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교육영역

1. 'NSLB 교육철학에 근거한 A.I.Navi(All Inclusive Navigating) 학생지도 비교과 교육체계 구축 ' 이라는 야심적인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성과를 보여줬다. 4 학년 136 명이 참여하였는데 목표값 49.5 점이었고 53.6 점의 성과(달성을 108.3%)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2019 년 KBU 6 대 핵심역량에서 (10 점 만점에 최소 6.4 점에서 7.6 점까지 달성) 우리와 같은 소규모 대학 환경에 최적화된 비교과 모델로서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대학과 공유가 가능한 이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증명되고 있다.

[3 면에 계속]

미니설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증거들 (요 14:26; 갈 5:22-23)

김웅기 교수 (성서학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방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은사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때 방언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 두 가지를 말하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 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다 (요 14:26), 둘째, 예수님의 마음,

사랑을 필두로 하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가 충만하게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갈 5:22-23).

수련회를 가보면 기도 시간에 수련회 참석자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 경우 거의 예외 없이 성령님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수련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기도의 체험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깨닫도록,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제 12 대 이사장 반종원 목사 취임

오는 13일, 제68주년 개교기념예배
첫 동문 이사장, 김창원 이사장 이임



▲ 반종원 이사장

제 68 주년 개교기념예배가 오는 5 월 13 일 (수) 오전 12 시 로고스홀에서 개최된다. 개교기념예배는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외부인 초청 없이 내부 행사로 간략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의 개교기념일 행사인 밀알축제, 학술제, 체육대회는 모두 취소되었다. 학우들의 기념예배 참석 여부도 4 월 30 일 현재 대면등교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유동적이다.

기념예배에 이어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제 11 대 김창원 이사장의 이임식과 제 12 대 이사장 반종원 목사의 취임식이 열린다.

신임 반 이사장은 본교 성서학과 (31 회, 1986 년 졸업) 와 침신대에서 목회학 (M.Div.) 학위를 받았다. 반 목사는 성서선교회 소속 수원침례교회에서 35 년 동안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으며 수원시 기독교총연합회장과 경기도 침례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본교 동문 출신으로는 반종원 목사가 첫 이사장에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 4 년간 이사장의 중책을 맡아 헌신해 온 제 11 대 김창원 이사장의 이임식도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3 월 2 일자로 제 7 대 총장으로 취임하여 일하고 있는 강우정 총장의 취임식도 이날 동시에 진행된다.

[2 면에 이어서]

2.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은 스마트 학사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구축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캠퍼스 구축에 따라 무선네트워크,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전산시스템 개선, 도서관 의자 및 강의실 기자재 교체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교육인프라 선진화 지수 (강의실 기자재 교체율, 교육환경만족도) 가 100.4% 로 나타나 환경개선을 통한 학습동기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불가피 했는데 LMS 에 접속 (Panopto) 수업 시스템의 도입으로 큰 효과를 봤다.

▲ 산학협력

1. '진로탐색 지원'에서 성과가 컸다. 재학생의 해외진로 탐색의 일환으로 계획한 이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담겼다. 공모를 거쳐 2 팀이 선발되었다. 대학생 진로 준비의 목표 값은 48 점, 최종 결과는 54 점 (달성을 111.7%) 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일부 언론이 '세계적 창의인재로 키우는 한국성서대' 글로벌 챌린지의 타이틀로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참신함과 기획력 및 주도적 진로탐색으로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만큼 좋은 결과였다는 기사로 홍보효과도 낳았다.

2. '지역사회 임팩트 강화': LO.CO. 프로젝트 (Local Community Project) 대학 주변의 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공모를 거쳐 6 팀 40 명이 참여했다. 목표값은 35.4 점, 결과는 52.5 점 (달성을 148.3%) 을 기록했다. 참여 주민들의 목표값 73 점, 최종 만족은 무려 93 점 (127%) 의 결과를 얻었다. 대학과 지역 사회 간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우리대학은 이번 1 차년도 사업결과를 통해 두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케 하였다. 첫째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바른 기독인 배출' 과 둘째 '사람과 함께하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인성을 소유한 인재 양성' 의 성과로 귀결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대학 혁신사업의 중심에는 '복음전도자 양성을 통한 한반도 복음화' 의 교육이념이 충실히 반영된 사업이 됐다.

한국연구재단은 1 차년도 혁신사업결과보고를 토대로 우리대학과 수도권 51 개 각 대학의 사업결과를 3 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형은 A 등급 30% (16 개 대학), B 등급 50% (25 개 대학), C 등급 20% (10 개 대학) 으로 구분하며 결과 (A, B, C 등급) 에 따라 20% 내외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 등급 120%, B 등급 100%, C 등급 70% 이다.

우리는 최소 A 등급을 목표하며 결과는 6 월경 발표 된다.

최우수 업적 유정선 교수 최우수 강의 이소정 교수

최우수 팀장 양희정, 팀원 김병수 대리
개인 최우수 권순범 팀장



▲ 유정선 교수



▲ 이소정 교수



▲ 양희정 팀장



▲ 권순범 팀장



▲ 김병수 대리

2019 학년도 최우수 교수와 최우수 직원상 시상식이 지난 22 일 채플 후 진행되었다. 교수 부문의 최우수 교수에 유정선 (성서학과) 교수, 최우수 강의상은 이소정 (간호학과) 교수가 선정돼 기쁨을 맛보았다.

직원 부문 최우수 팀장은 양희정(사무관리팀), 최우수 팀원 김병수(교학팀) 대리, 개인성과 우수 직원 권순범 (평가감사실) 팀장이 수상하였다.

▲ 최우수 교수상

최우수 교수로 선정된 유정선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영예로운 수상이지만 부족함을 잘 알기에 부끄럽다며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함"을 나타냈다. 최우수 강의의 이소정 교수는 "귀한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겸손함으로 학생들을 섬기고 책임을 다해 지도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

최우수 교수상은 지난 1년간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신앙, 교육, 연구, 봉사 4개 영역을 종합 평가한 후 가장 높은 성과의 교수 1인에게 선정된다. 최우수 강의는 교수의 수업계획서, 수업진행 및 강의시간, 수업의 질적 내용 여부 등 14개 문항에 대해 학우 개개인의 평가가 더해져 최종 결정된다.

▲ 최우수 직원상

최우수 팀장에 오른 양희정 팀장은 "팀원 모두의 역량이 더해진 결과라며 지난 1년간 동고동락으로 수고한 팀원들의 덕분이라"고 기쁨을 돌렸다. 수익사업 극대화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성과를 이뤄냈다. 최우수 팀원의 김병수 대리는 "동료들의 도움이 더해져 가능할 수 있었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였다. 교수 연구지원 및 장애학생지원에서 역량을 보였다.

개인성과 최우수의 권순범 팀장은 "그동안 흘린 여러 노력을 인정해 준 귀한 상이라며 구성원 모두와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입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임에도 효과적인 업무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

교수학습센터 임수아 입학관리팀 배민정 임용 “섬김을 다하겠다. 주님께 영광을” 소감 밝혀



▲ 임수아 씨



▲ 배민정 씨

임수아 (교수학습센터 연구원) 씨와 배민정 씨 (입학관리팀) 가 신규 임용되었다.

임수아 연구원은 안양대에서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을 복수 전공하였고 경희대에서 교사 리더십으로 석사학위를 마쳤다. "학우들과 교직원 및 교수님들을 위해 섬김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소감을 말하였다. 교수학습센터 비교과 업무 등을 맡는다. 입학관리팀 배민정 직원은 본교 사회복지학과 (63회) 졸업 하였으며 국제개발 NGO '팀앤팀'에서 대외협력팀 인턴으로 근무한바 있다. 그는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주어진 입학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학관리의 행정적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중간고사 온 · 오프 방식으로 치러져

4월 20일 주간, 54% 오프라인 시험



▲ 신입생들에게 학생증과 학사카렌더가
지급되고 있다.

2020 학년도 1 학기 중간고사가 4 월 20 일부터 5 월 8 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담당 교수의 결정에 따라 온 · 오프 방식은 전체 183 개 과목 중 온라인이 46% 오프라인이 54% 였다. 시험은 수요일이 48 과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요일이 10 과목으로 가장 적었다. 일부 과목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10 주째까지 이어졌다. 20 일 캠퍼스를 밟게 된 학우의 입장에서는 정규 개강일보다 50 일 늦은 방문인 셈이다.

전공교육부 (부장 조윤경) 에서는 이날 학우들의 등교에 맞춰 '코로나 19' 예방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였다. 학우들은 먼저 학교 정문과 주차장에서 감기나 미열을 확인한 후 작은 원형 스티커를 지금 받았다. 스티커가 없으면 시험을 치를 수 없었고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실도 허용되지 않았다. 시험장내 의자 간격은 사방 2 미터를 유지해 앉았으며 모든 시험장은 매일 2 회의 소독과정도 거쳤다. 각 건물 출입구 계단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되었고 학교에 있을 때 발열하면 학교 보건실로 격리되고 곧바로 후속조치 계획이 마련 되었다.

그동안 학우들의 출입 통제로 적막했던 캠퍼스는 이날 학우들의 발걸음으로 활기 를 되찾았다. 처음 방문한 신입생들에게는 학생증이 지급되었다.

유상익(사복 1) 학우는 "등교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슴이 무척 설렜다. 시험을 위한 잠정적 조치의 등교지만 이도 무조건 감사하다. 하루빨리 사태가 종식 돼 학교가 정상화 되고 멋진 대학생활이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제 3 차 이사회 학교 재정 결산 및 규정개정 등 통과

법인 이사장 이 · 취임식
개교기념일에 개최하기로

2020 학년도 제 3 차 이사회 (이사장 김창원) 가 23 일 밀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사회 안건은 지난해 법인 및 대학 예산의 결산, 학교의 기금사용 승인과 규정개정, 부설 수탁기관의 추경과 예산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사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해 법인 예산 18 억과 학교 178 억원의 결산과정이 적절히 운용됐다며 통과 시켰다. 또한 평가감사실의 성과관리 및 평가, 성과관리위원회 추가에 대한 규정개정과 기초교육원의 교직부 운영안 신설도 가결하였다. 이밖에 기금사용 승인 및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도 타당하다며 통과시켰다.

이사회는 우리대학교 개교기념일인 5 월 13 일에 김창원 이사장의 이임식과 신임 반종원 (31 회, 수원침례교회 담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갖기로 하였다.

설립자 자손들

『KBU 2020 캠페인』에 참여 오 에스더 6 천달러 강일아 50 구좌

설립자 강태국 박사의 자손들이 성서대학교살리기『KBU2020 캠페인』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다.

▲ 오 에스더 – 오 에스더 교수(존스 흉킨스 의과대학, 치매 전공)가 대학발전을 위해 미화 6000 달러를 후원했다. 오 교수는 설립자의 차녀 강혜정 사모의 장녀다. 오 에스더 박사는 초등학교 시절 상계동 캠퍼스에서 외할아버지가 추운 겨울에도 연탄난로의 불을 약하게 틀어 놓고 견디는 것을 보며 "할아버지, 쎄게 틀어요. 제가 돈 많이 벌어 연탄 많이 사 드릴께요" 라던 생각이 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다.

▲ 강일아 – 할리우드에서 중견배우로 활약 중인 강일아(Tim Kang)씨는 지난 3월부터 이 캠페인에 50 구좌(미화 월 500 달러)를 약정하였다. 강일아씨는 강우정 총장의 장남이다. 현재는 하와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범죄수사극 'Magnum P.I.'에서 하와이 경찰국의 수사반장역으로 드라마를 이끌고 있다.

▲ 강승태 장로 가족 – 샌프란시스코 실로암교회 장로 가족이 4월부터 27 구좌(미화 월 270 달러)를 약정하였다. 강 장로의 사모 강영숙 집사는 총장 사모 강진여사의 동생이다.

『KBU 2020 캠페인』 이병태 (제트전기) 대표 240 만 원 약정

▲ 이병태(제트전기) 대표 – 이병태 대표가 240 만원을 약정해 주었다. 이 대표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성서대학교가 다른 신학대와 차별화된 정체성과 존재감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러한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큰 기쁨이라고 말하였다. 제트전기는 경기 북부권 일대에서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 진단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견실한 믿음의 업체다.

성서대학살리기『KBU 2020 캠페인』(2020. 4. 1 ~ 4. 30)

일반 후원자 (합계 1,200,000원)

박선 법인이사	1,000,000	이준구 중앙성서교회	50,000
이복화 중앙성서교회	100,000	배금녀 재학생 및 가족	50,000

약정 후원자 (33명, 111구좌, 연간 약정 납입 예정액 1,332만원)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10구좌 강승태	이정희 한재희
4구좌 정영은	2구좌 배민정	5구좌 강영숙	2구좌 문광철
3구좌 꿈꾸는 교회 최홍식	1구좌 강소라	4구좌 강지원 강지홍 강지훈	1구좌 권순웅 박병훈 서민석
2구좌 유의숙			오흥복 정진주 한춘경
1구좌 탁윤석	중앙성서교회	일 반	
재학생 및 가족	3구좌 권순호	20구좌 제트전기	
1구좌 김용수 이나라	재미교포	10구좌 정상열	
		5구좌 이석희 오계순 윤창민	

합계 14,520,000원(일반후원+약정후원) _ 누계 57,241,317원 _ 목표 5억원 14%달성 (2.21~4.30 현재)

신입교직원 연수회

14명 참여

우리대학 정체성과 행정실무 등 익혀



▲ 권경만 기획실장이 신입교직원들에게 건학 이념을 교육하고 있다.

2020 학년도 신입교직원 연수회가 지난 22 일 갈멜관 브니엘홀에서 개최되었다. 신입교직원 14 명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권경만 기획실장이 '한국성서대학교 발전방향과 나'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대학 건학이념과 복음전도자 양성의 교육목적에 따라 자신의 역할에 최선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유정선 일립교육부장은 '일립교육' 이란 무엇인가로 정체성을 환기해 주었다. 설립자가 꿈꾸던 한반도 복음화는 현재도 진행형이라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헌신을 다하는 성서공동체원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중완 행정본부장은 사립대학 회계의 특성과 기준 및 개인정보보호 개념에 대해 교육하였다. 이와 함께 성서공동체에 속한 직분자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교직원 복무규정 등도 소개했다. 양희정 사무팀장은 주요 행정실무 안내와 주요 문서작성 및 그룹웨어 사용법 등을 PT를 사용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교육에 참가한 교목실 양승용 직원은 "우리대학의 교육이념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다. 아직 배울게 많다는 걸 느꼈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입교직원 연수회 참가자 14 명은 다음과 같다.

교 목

▲ 민찬양(교목실)

연구원

▲ 홍세영 ▲ 서의영 ▲ 임수아(교수학습센터)

직 원

▲ 양승용(교목실) ▲ 김창현(신양훈련과) ▲ 윤경민(기획팀)

▲ 배민정(입학관리팀) ▲ 양윤식(사무관리팀)

행정조교

▲ 김승현(성서) ▲ 황찬범(사복) ▲ 김지현(영보) ▲ 김지하(컴소)

▲ 김다윗(기초)

최정권 목사의 미술에세이 '최정권의 미술줌니다' (가칭) 연재



최정권(성서대학교회 담임) 목사가 오는 6 월부터 본지에 미술에세이 '최정권의 미술줌(Zoom) 니다'(가칭)를 집필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미술분야가 나의 전공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애착을 가지고 함께 해온 분야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하고 싶은 시대적 서사와 그 너머속 숨겨진 운명과 감성, 삶의 애환 등을 감상자의 시선과 호흡에 담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본교 코코스지에 목사 컬럼을 게재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독교방송채널 CBS-TV의 가장 인기 프로그램인 '성서학당'을 3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기독교라디오채널인 극동방송의 '성서의 시간'에서도 매주일(08:45)마다 말씀을 통해 청취자와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Interview

뇌병변장애 3급
정지용 동문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 주차장 부스를 지키는 미소의 전도사

▲ 일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나?

나는 선천성 뇌병변 지체장애 3급이다. 보다시피 신체는 비록 뒤틀려 있고 말도 어눌하지만 내가 이 귀한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오직 감사요 은혜다.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며 임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절대 태만할 수 없다.

▲ 방문자로부터 가끔 정지용 씨를 칭찬하는 말이 들린다.

감사하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은 장애등급자가 있다. 대부분 단기취업이라서 고민이 깊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게도 모교 근무 3년째, 정년이 보장 되어 있다. 이곳이 천국 아니겠는가...^^ 감사를 모르고 근무한다는 건 죄악이다. 나의 진정성을 오가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그게 학교로 선순환 되어 주는가 싶다. 그저 내가 더 고맙다.

▲ 사람들로부터 장애인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할 텐데

물론이다. 방문차량의 상당수가 백병원 정기차량이다. 초창기 10여개월 동안 진심을 담아 인사했다. 그중 한 차량은 유독 반응이 없었다. 그러나 개의치 않았다. 어느 가을날 퇴근길에 그가 창문을 열고서 애 많이 쓴다며 음료수와 빵을 건네줬다. 손까지 흔들고! 보내고 나서 울컥했다. 나는 속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감동시켜주셨구나!^^ 지나온 괴로웠던 모든 순간이 보람이었다.

▲ 모태신앙인가? 오늘이 있기까지는?

나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걷지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했다. 내가 지금 걷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순전히 어머니의 힘이었다. 6번 대수술을 했다. 연약한 아들을 보며 어머니의 속은 숯덩이보다 더 검게 탔을 법한데도 항상 나를 지켜 봐 주셨다. 지금도 나에게 날마다 도시락을 챙겨주는 고마우신 어머니다. 감사합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의 인도였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던 시기였다. 그런 나에게 교회는 빛이었고 탈출구가 되면서 지금의 정지용으로 세워졌다.

그 후 성서대학을 만났고 2014년 성서학과(60회)를 졸업했다. 침신대에서 목회학석사를 마쳤다. 현재 교회에서 셀장을 맡고 있다. 발달장애인 5명과 정상인 15명을 이끈다. 받은 사랑이 커서 연약한 이들에게 되갚고 싶어 자원했다. 따듯한 모임이고 내 진정성을 받아줘 감사하다. 지금은 셀이 위로의 원천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

▲ 성서대학은 정지용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

장애인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준 학교다. 원리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다. 우리는 모두가(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음을 받은 귀한 존재라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항상 정당하고 떳떳해야 한다. 성서대학에 온 장애학우들은 비장애인 학우들에게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아 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편협한 시각을 완화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나 혼자라도 나의 영역 안에서 진정성을 다해 반듯함을 전하며 똑같은 한 형제자매로 인식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불편함을 무릅쓰고 나 같은 장애인을 보듬어 주고 있는 교직원 여러분의 사랑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직원 칼럼
유수연 사서(도서관)

인생은 무감독시험입니다

우리 대학은 무감독시험이 원칙입니다. 모든 시험을 무감독으로 치러집니다. 언제부터인가 무감독시험을 시험인원 40 명 미만인 경우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모든 시험은 무감독이 원칙이고 40 명이 넘으면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감독시험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무감독시험은 새로운 제도도 아니고 우리대학만의 제도는 물론 아닙니다. 60 년 이상 무감독시험을 전통으로 시행해온 고등학교가 있는가 하면 많은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이제 도를 채택하고 있고 최근 무감독시험을 시행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관학교도 하나의 명예제도로 무감독시험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무감독시험에 대해서도 학교 안팎에서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무감독시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Coram Deo) 의 삶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앓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밝히 아시며 우리는 그의 임재 앞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노출 되는 면은 10% 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빙산(冰山)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혼자 하는 생각, 혼자 있는 시간은 물에 잠겨 있는 90% 의 어름 덩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학우들은 무감독시험으로 훈련되고 단련 되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훈련으로 마음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좀 더 어려운 유혹을 당할 때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감독시험은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 교계지도자들의 추악한 뉴스를 듣게 됩니다. 평생 노력하여 쌓아 올린 명성과 지위가 하루 아침에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인생 낙오자의 낙인이 찍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그들이 아직 젊었을 시절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했었다면 오늘 그런 유혹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생 맛 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TVN 에서 방영하는 < 요즘 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혼자 읽기 어려운 도서, 읽었지만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도서를 명쾌하게 대신 읽어주는 교양 독서 프로그램이다. 강사 설민석의 강독으로 '비운의 왕세자'라고 불릴 만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세자의 일생을 만났다. 코로나 19 로 세계가 난리를 겪는 상황에서 더 흥미로웠던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한 시대를 휩쓸어 버린 무서운 전염병 이야기)도 재미있었다. 혼자 읽었다면 어려웠을,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렸을 도서를 한 주 한 주 함께 배워나가고 있다.

나의 유년은 도서관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고 1 권에 300 원씩 대여하는 대여 책방이 많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가까운 곳곳마다 작은 도서관부터 공공 도서관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전자책도 활성화 돼 시간과 관계없이 휴대폰으로 읽을 수 있다.

우리 도서관도 전공도서부터 다양한 전자책이 갖춰져 있고 때마다 재미있는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중이다. 지난 학기는 독서멘토링을 통해 30 명의 학생과 독서메이트를 가졌다. 단순히 책만 읽지 않는다. 2 주 동안 매일 학우들과 만나서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까지 나눈다. 멘토링에 참여한 학우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학교 때 꼭 읽어야 할 필독서를 놓친다는 점이 아쉽다. 성인으로써 세계관이 형성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깨닫고 배워야 할 도서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학우들에게 독서멘토링을 꼭 권하고 싶다.

독서는 인생에 좋은 선생이 되며 길이 되기도 한다. 또 독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독서에 도전하고 싶지만, 어렵다면 일단 도서관에 오길 바란다.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게 될 것이고, 뷔 맛집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금세 읽게 될 것이다.

따뜻한 책 한 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교수 컬럼
이소정 교수 (간호학과)



외래교수 컬럼
김남옥 교수 (현대사회문제)

하루를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은...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 마다 달라진다고 한다. 무언가에 열중하거나 학습할 때면 뇌의 신경경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되고, 반대로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뇌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더 나은 결과를 얻게 해 준다. 결국 인간은 나날이 더 성장하며 주변 환경에 잘 적응 할 수 있게 된다.

바쁜 현대를 살아가다보면 가끔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한다. 정도가 심할 때는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하고픈 이기심이 고개를 들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상처와 낙심이 쌓이고 마음마저 무거워진다. 그렇다고 이를 피할 수만은 없다.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언젠가 또 다른 형태로 생겨나거나 더 곤란한 상황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원가를 두려워하면 그 원가에 곧바로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겐 회피가 아닌 당당함을 견지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방법을 찾다보면 우리 뇌에서는 항상 최상 혹은 차선의 해결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넘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 많은 일들을 하지만,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될 때 일을 사랑하게 된다. 그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게 한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를 '아니오'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반대인 '예스'라고 생각한다. '예스'는 가능성에 대한 허락이고 일에 대한 사랑이며, 기분을 향상시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긍정으로 이끌어준다.

긍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충실히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존재케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성서공동체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이다.

이 별

한생의 사랑을 나와 머문 그대, 이제 가네.
가는 그대 (……)
천변만화의 계절이 잘게 쪼개져
머무를 처소 하나 없이 우주 만역에 흩어지는 먼지의
나날이 될 때까지
나는 그대를 기억하리.
_ 심보선의 시, '먼지 혹은 폐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별을 마쳤다. 유난히 긴 겨울 끝에 찾아온 찬란한 봄날이었다. 식민지, 전쟁, 가난, 시집살이 굽이굽이 고갯길, 구십 육 해 힘겨운 여정을 멈추시고 영원히 머물 처소를 향해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신 것이다. 정신과 육체의 쇠락함 속에 더불어 평생 함께 했던 기억들을 다 놓으신 와중에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한 가지, 자식에 대한 그리움만은 붙잡고 계셨다.

지난 겨울에 닥친 '코로나 19'의 확산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상들을 멈추게 했다. 금방 꺽일 것 같아 보이던 바이러스가 좀처럼 꺽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위력으로 세계를 '정지 사회'로 몰고 갔다. 사회적 삶의 근간이 되는 만남, 대화, 식사, 여행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동마저 정지시켰고, 그렇게 또 봄이 왔다.

시설 방문이 금지되자 요양원에서 자식들의 방문만 기다리던 어머니는 가족에 대한 깊은 그리움에서 우울로 침잠해 들어갔다.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우울감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하고도 속수무책 보내야 하는 시간은 큰 형벌이었다. 찬란한 봄이 이토록 아픈 일이었던가. 그러나 병원으로 모셔와 가족이 임종을 지켰는데 '코로나 19'의 안정화 단계에 소천하셨다.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발인이 주일을 비껴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한생 동안 당신과 내가 함께 한 삶은 사랑이었습니다. 천변만화의 계절이 잘게 쪼개서 먼지의 나날이 될 때까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성서대학교회 담임

부활절 아침에

누나라고 불렀던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2였고 그분은 대학 신입생이었습니다. 생각의 저장 기능 한 쪽이 쪼그라진 관계인지 그 이름마저 기억 나지 않지만 봄날 따뜻한 별 아래 어깨에 훌날리던 스카프는 기억이 납니다. 유독 그 누나가 생각나는 건 특별한 사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어느 대학 간호학과를 다녔던 그분은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혼자만 유일하게 살아났습니다. 동행했던 친구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분에게 수녀님이 해 준 이야기를 제게 해 주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너를 살려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잘 외우고 다녔던 구절은 "인간 구원의 마지막 계단은 문학의 문으로 가는 것이다" 저도 잘 모르는 말을 하고 다녔던 시기라 아마도 그 범주에 원가 말했을 겁니다.

부활절 앞둔 고난주간에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받았습니다. 미국 이민 교회에서 고와 낙을 함께 나누었던 장로님 한 분이 심장마비로 소천했다는 겁니다. 유난히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던 동갑내기 장로님의 죽음을 듣고 어느 영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나는 대화인데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가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그게 누가 내 갈비뼈 하나를 빼내는 것 같아" 돌에 맞은 수면의 파장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픔이 더 해 갑니다.

그의 딸, 줄리(Julie)가 저에게 영상으로 조문사를 부탁하면서 끝에 쓴 말은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에게 좋은 목사님과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해요. 아빠는 정말로 목사님과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자기 생애에서 목사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행복해요"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being a great pastor/friend to my dad. He really treasured your relationship, and I'm happy he had you in his life.")

코로나로 열 명 이상 모이기 어려운 장례식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눈에 익은 강단과 화면을 통해 한국에 있는 제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장로님과 다시 만날 생각으로 지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며 천국에서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과 함께 계실 장로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가 부름 받은 그 숲길의 평안함도 그의 몸이 묻힌 '포레스트 힐'의 나지막한 언덕도 다 제 눈앞에 있습니다. 자꾸 반대편에 같은 햇살을 찌며 저 만큼 바람에 흘어지는 봄날 벚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 다 일어나 만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8)'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70



http://search1.kakaocdn.net/argon/0x200_85_hr/6BJGMGCKEY

섬집 아기 _ 한인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 주는 자장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랫길을 달려옵니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도 갈매기 울음소리도 엄마에게는 온통 아가 소리다. 손은 굴 따기에 여념이 없지만 마음은 온통 훌로 남은 아가 곁에 있다. '다 못 찬 굴 바구니 머리에 이고 허둥지둥 모랫길을 내달리는 엄마' 그가 바로 우리들의 엄마다.

"한평생 중이염을 앓아 고기만 드시면 귀에서 고름이 나오곤 하시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고깃국을 먹으러 가자 하시고"(함민복의 <눈물은 왜 짠가>),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앓아 점심을 때우며 하루 종일 죽어라 힘들게 일하시는"(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목이 멘다).

<섬집 아기>는 1950년 4월 《소학생》에 발표한 한인현의 동시에 작곡가 이홍렬이 곡을 붙여 창작한 동요로 해금, 소금, 기타, 바이올린, 오르골 등으로 연주되며 지금도 여전히 엄마의 한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을 깨끗이 씻고 있는 영유아.

긴급돌봄 보육 프로그램

대학어린이집은 '코로나 19' 여파로 돌봄이 요구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각 가정별로 긴급돌봄의 필요 여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 교육과정에 맞춰 운영이 되고 있다.

긴급돌봄을 시행하면서 이 기간 중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모든 성인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마스크의 착용 여부도 철저하게 검사한다. 또한 혹시 모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놀잇감 및 교실내 소독도 매일 실시하고 있다. 교사들은 돌봄을 이어가는 도중에 수시로 영유아의 건강 상태 확인은 물론이고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을 챙기며 쾌적한 환경 유지에 힘을 쓰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더 이상의 어려움은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소망한다. [기쁨반 교사 남윤주]



▲ 직원들이 어르신께 드릴 반찬을 도시락에 담고 있다.

진정한 친구 '월계'

월계의 전 직원들은 아침마다 1 층 행복레스토랑에서 만든 도시락을 어르신 가정에 배달하고 있다. 원래는 자원봉사자들이 해오던 작업이었는데 '코로나 19'로 출입이 차단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 및 장애인 가정에 결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나섰다. 이와 함께 홀몸어르신, 노인일자리 참여자, 자원봉사자에게 안부와 건강 모니터링도 실천중이다. '코로나 19'로 못 만나지만 격려해가며 고난의 짐을 나누려는 것이다.

이밖에 어려운 가정을 선정해 카카오·카카오 같이가치(2명, 각 30만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9명, 각 온누리 상품권 3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명, 각 30만원 *3개월)을 통해 생계비를 지원하였다. 힘든 시기 일수록 나누고 격려해가는 진정한 친구 '월계'가 될 것을 직원 모두는 다짐한다. [사회복지사 흥유민]



▲ 영유아들의 활동상이 담겨진 사진

찾아가는 놀이 '홈 플레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어린이집 휴원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꿈빛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아동 비율은 현재 30~50%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등원하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놀이(홈 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다.

홈 플레이는 어린이집 등원에 앞서서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 등으로 즐거움을 맛보며 다가올 새로운 환경에 미리 적응케 하려는 목적이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활동하면서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이를 스마트 알림장에 업로드 시키도록 하였다. 영유아들은 자신의 얼굴사진을 비교해 가며 빨리 등원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영유아들이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뛰어 놀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목련반 특수교사 박미선]

마음이 따뜻한 4월

성서대학교회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성도들과 협조로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가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희년의료공제회'에서 마스크를 후원받아 이를 21명의 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학생 활동 중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 한 가지는 의료혜택이다. 교회에서는 유학생 12명에게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나머지 가입이 안 된 9명의 유학생들도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하도록 노력과 힘을 다해 갈 것이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당분간 서로에 대한 관계는 약간 멀어졌지만 그러나 서로를 돋고 섬기는 마음만은 더욱 가깝고 따뜻해지는 4월이다.

[목사 김문웅]



▲ 담임목사와 유학생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어린이집



▲ 한 유아가 예쁜 꽃을 텃밭에 심고 있다.

금요일 배달되는 놀잇감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푸른반 유아들은 어린이집 앞 텃밭에 흙 고르기를 하였다. 텃밭 흙을 고르는 과정에서 공벌레, 애벌레, 지렁이 등 다양한 곤충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접했다. 손길이 더해진 텃밭의 흙이 부드러워지자 유아들은 들깨, 상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모종도 심었다. 이밖에도 특별히 '코로나 19'로 움츠린 마음을 위로하고자 나랑, 아네 모네 등의 꽃모종도 정성스럽게 옮겼다. 그날 이후 유아들은 매일 텃밭에 물을 주며 식물을 정성껏 돌봤고 하원 시간에는 부모님과 식물, 곤충을 관찰하는 등 관심을 쏟았다.

한 학부모는 "작은 텃밭이지만 이곳이 아이들에게 큰 배움터가 되고 있어 감사하다. 하원 시간마다 새롭게 변하는 꽃과 곤충을 이야기하는 모습 자체가 기특하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맑은반 교사 용혜수]

노원육아
종합지원센터



▲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 콘테스트용 포스터.

상계5동
어린이집



▲ 어린이집을 방문한 학부모에게 어린이날 선물이 전해지고 있다.

늘사랑
어린이집



▲ 유아들이 식목일 행사용 자료를 활용중이다.

충무
어린이집

제 12 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4월 1일 ~ 5월 22일까지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제 12 회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의 주제는 '행복'이다. 가족 부문은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이 좋고 어린이집 안에서의 보육활동과 센터 체험 과정에서 행복한 아이의 모습이면 가능하다. 사진콘테스트는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사이트 (<http://www.eaja.or.kr/>)에서 접수하며, 시상은 7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어울리는 시간도 줄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다. 행복한 우리아이 사진콘테스트를 통해 영유아 가족과 어린이집 마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 꿈나무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육전문요원 김슬아]

어린이날 선물

상계 5동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가정보육중인 영·유아반 40명에게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영아반은 손소독제와 마스크, 버블건을 유아반은 손소독제, 마스크, 보드게임이 제공되었다.

영유아들은 등원을 못한 상태에서 이번 선물소식에 반색을 보였고 학부모들이 직접 내원해 수령하였다. 학부모들도 코로나 19 여파로 아이들이 등원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높아가던 상황에 있었다.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제공해 준 덕분에 당분간은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를 전했다. 교직원들도 현장학습, 특기활동, 실외활동이 중단돼 아쉬웠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게 될 모습을 상상하니 힘이 난다며 '코로나 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염원했다. [예쁜꽃잎반 교사 유정현]

가정에서 만나는 늘사랑어린이집

늘사랑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해 배부하였다.

자료는 식목일 행사용 '개운죽 키우기'와 '나비야 나비야', '안녕, 새싹', '나는야 토마토' 등의 활동자료가 제공되었다. 학부모들은 제공된 자료로 아이들과 활동하며 키즈 노트에 사진과 후기를 올려 어린이집과 공유하게 된다. 개운죽에 이름을 짓거나 개구리 알로 다양한 놀이를 하는 내용이 소개되었다. 이밖에 새싹을 심고 냄새를 맡고 표현하는 자료와 마음껏 꾸민 나비를 들고 산책 나가는 등 다양한 활동 등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학부모들은 덕분에 촉감놀이까지 신나게 놀았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앞으로도 가정에서 활동한 이야기로 풍성한 보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즐거운반 교사 변윤선]

깜짝 선물

충무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0일 '코로나 19'로 등원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보냈다. 선물은 코로나 모자, 마스크, 손 소독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활동 등이 담긴 놀잇감과 여기에 담당 교사의 손 편지가 담긴 꾸러미를 가정에 택배로 보냈다.

예기치 못한 선물 꾸러미를 전해 받은 유아와 학부모들이 큰 기쁨을 나타냈다. 각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의 배려와 사랑이 담긴 감동의 선물 꾸러미였다며 환한 표정과 함께 고마움을 전해왔다. 학부모들은 유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배달된 택배라서 기쁨이 훨씬 컸다는 반응을 들려줬다.

새 학기가 되었지만 아직 등원을 못한 친구들에게 깜짝 선물로 즐거움을 전하고 건강을 염원하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교사 백예나]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0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742만원(운영)	박선(이사)	120만원(운영)
(재)농촌청소년미래재단	375만원(장학)	강규성(부총장)	115만원(장학)
KRX국민행복재단	300만원(장학)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무명	260만원(운영)	주생명교회	100만원(장학)
강일석	183만원(운영)	이례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허오정	180만원(운영)	오명자	100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재학생 및 가족	부설기관	3구좌	권순호
1구좌 강상미 강은아 권순실 권순웅 김은혜 김하은 노한나 민정은 윤에서 윤현묵 장윤국 전다현 전아영 정희영 최서희 탁윤석 홍애진	1구좌 윤효심 이나라 2구좌 오옥경 교직원 및 가족 0.8구좌 정진주 1구좌 김세진 안수자 3구좌 강민경 강승현 유성현 이상일 정은상 최지연 한상만	1구좌 이유진 2구좌 장윤정 3구좌 탁지혜 호한나 5구좌 여미희 비전교회 2구좌 곽성국.장은경 수원교회 1구좌 김일섭 장자교회 4구좌 권정숙 중앙성서교회 2구좌 우용식	1구좌	강소라 권숙영 김명호 박병훈 서민석 오현숙 이해숙
2구좌 김연정 김일한 마혜진 배민정 이구영 이충희 임은희 조성진	3구좌 이소연 4구좌 임경미 4.1구좌 김종무 이은광 이정희 한재희 8.3구좌 정상열 10구좌 김현광 박태수	3구좌	2구좌 우윤주 정형채 3구좌 윤미선 4.1구좌 오계순 단체 및 기관 1구좌 김용수 꿈꾸는교회 4구좌 플랜팅시즈 5구좌 다드림교회 10구좌 구리성광교회 16.6구좌 제트전기	2구좌
3구좌 권서영 김동원 5구좌 김종남 양원석 이기훈 이부호 천유림 허성희 6구좌 정동주 10구좌 임현필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강동란 김샛별 김시내 민이삭 정다운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철교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민정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민경 서유미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순애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유지 송향숙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중수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오세천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용아름 우승연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수정 유양숙 유영진 유주홍 유지영 윤솔이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묵 윤헤자 이광석 이근중 이도훈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은실 이은영 이정모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주희 이진경 이진리 이진주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선 이혜윤 이화연 이환기 이환희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웅 임창열 장순호 장윤국 장익심 장희남 전다현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소영 전아름 전아영 전예지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성희 정영교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경애 조민음 조소연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은경 조인순 조태환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차현정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승주 최승진 최아란 최예슬 최인호 최종운 최준혜 최진희 최혜림 탁국현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원창 허영숙 허정운 흥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자영 홍정심 황선명 황승호 황형록 황희준 설에스더 신에스더 이예람	3만원	김일한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중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대우 박재승 백연옥 성낙표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민규 송인성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안소희 양승용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윤광길 이구영 이기용 이기주 이상복 이상진 이선영 이수경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임은희 장익봉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영은 정옥순 정 완 정주영 채명숙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흥진옥 흥혜주 황보혜영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김다예 김동교 김동원 김세련 김시내 김우선 김종숙 김지애 김태영 김현아 나예원 남지원 명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승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설보경 양연선 양혜경 양혜영 오유경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우진 이윤성 이재국 이주연 이지연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재현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강현미 고성호 곽미화 구본길 구본삼 구세경 권명순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 준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다솔 김도훈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소영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유미 김유진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지선 김 진 김진영 김진하 김준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태 김효래 나선영 나혜수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홍철 민정은 박경수 박경우 박명우 박상수 박성준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지영		2만원		
		1만5천원		

